

# 무한 청정에너지...2050년 1500조 시장 잡아라

## 수소차

광주시가 현대차그룹과 공동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시장 선점에 나서면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차(투싼ix)양산에 성공한 현대차는 급부상하고 있는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동차 도시인 광주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차를 묶어 수소차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광주 창조센터'를 개소하는 등 적극 돕고 있다.

운행한 광주시장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현대 수소차를 관용차로 애용하는가하면 이미 '수소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는 등 수소차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운 시장은 특히 민선 6기 최대 과제를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사업'으로 정하고, 그 핵심을 수소차 등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현대차가 전국 자치단체 중 유독 광주시와 협력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자치단체장의 무한 애정과 수소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연구, 산업 인프라 등이 전국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다.

◇광주와 수소차가 만나다=광주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광주 창조센터(1, 2센터)를 설립하고, 1센터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차 연관 산업을 육성중이다. 수소차의 성능향상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

생산·연구 시설 인접 광주가 최적지

현대차그룹과 손 잡고 창조센터 설립

수소연료전지차 기술 개발 박차

해 산·학·연도 가세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수소차 허브도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국내 수소차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융합스테이션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융합스테이션은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수소와 전기 등의 에너지를 만들어 판매, 저장, 분산발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내년까지 광주에 수소융합스테이션 2기를 구축하고, 2017년까지 자동차 관련 기업 30개를 창업 육성한다는 지원계획도 내놨다.

◇광주, 수소 산업 발전에 최적=광주는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방산업과 연구 및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국내 3대 수소 생산기지인 광주에서 멀지 않은 여수산단에 있고, 광주과학기술·전남대·자동차부품연구원·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등의 연구 시설도 갖춰져 있다. 연료전지(40여개), 모터(20여개), 배터리(10여개), 인버터(10여개) 등 수소연료전지 분야 관련 기업도 80여 곳에 이른다.



광주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원 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이 1층에 전시된 수소연료전지차 구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소차 시장 규모=디젤차(투싼ix2.0 디젤기준) 100만대를 수소연료전지차(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 기준)로 대체하면, 연간 1조5000억원의 원유 수입대체효과와 1GW급 원자력 발전소 10기(구축비용 30조원) 역할,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210만 t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수소연료전지차의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수소차의 보급과 수소, 저장, 이용, 공급 인프라와 생산 기반 구축 등 과정에서 막대한 연관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도 기대되고 있으며, 수소차 기술을 선점할 경우 거대한 수출시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세계 수소 연료전지 시장 규모만 2050년 기준으로 1463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처럼 수소차 등 수소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가 고갈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소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최적의 청정에너지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만의 '창조 브랜드' 키워 세계시장 넘본다

##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산업이 21세기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해리포터 판타지 스토리는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 출판 등 문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생 효과가 무려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은 100조 원, 수출액은 6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른 시기부터 첨단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공예·디자인, 에듀테인먼트 등 5대 문화산업 전략콘텐츠를 집중 육성해왔다. 지난 2002년 문화콘텐츠 산업의 산실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출범한 게 대표적이다. 이후 광주영상문화복합관, 광주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컴퓨터형성 이미지)센터 등을 잇따라 확충,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첨단장비와 인프라를 토대로 우수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창작·기획부터 제작, 국내외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두터지의 모형을 소재로 한 3D 애니메이션 '두다다롱'(아이스크림 스튜디오)은 지난 2013년 EBS 첫 전파를 탄 후 현재 시정률 1위 프로그램이 됐다.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부로부터 CGI센

2002년부터 문화생태계 구축

영상·게임·만화 콘텐츠 육성

758명 문화 전문인력도 배출

터권역, 문화전당권역 등 4개 권역을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지구는 문화관련 기업에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일종의 문화특구다. 광주의 풍부한 문화산업 인프라는 시각효과(VFX) 전문 제작업체인 ㈜모팩스튜디오와 게임 상장사인 ㈜와이드온라인 등 모두 162개 기업을 유치·신설하고 81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광주는 지난 2012년 문화부와 공동 투자해 190여 억원 규모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을 결성, 공세적인 투자로 문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조합은 지난 2월말 현재 광주 지역업체 제작 프로젝트에 154억원 등 모두 75개 프로젝트에 337억 여원을 투자했다.

문화인력 양성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 모두 758명의 인력을 배출했다. 수료자 653명 가운데 65%(426명)가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투자자원을 받아 제작된 3D 애니메이션 '두다다롱'과 광주CGI(컴퓨터 형성 이미지)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시는 올해 음악산업 인프라 확충과 뮤지션 발굴 등 음악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오는 5월 콘텐츠산업지원센터(옛 KBS)에 문을 여는 '광주 음악창작소'가 그 출발점이다. 이 공간은 광주지역 인디 음악인들의 음반 제작지원, 교육, 신인뮤지션 발굴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음악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예산업 육성도 올해 추진되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 핵심을 이루는 '수제공방육성사업'은 실용·예술성을 겸비한 우수 공예품의 개발 및 마케팅을 돕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좌표로 설정했다. 공예 부문에서 끼, 숨씨가 있는 예비 장인들을 모집, 교육하고 창업까지 지원한다. 올해 광주는 문화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끌어

올리고 전시·마케팅 기능의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창조콘텐츠 제작지원센터'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플라자'를 갖춘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또 문화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등 R&D를 도맡을 '문화기술연구원' 설립에도 나선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상무지구 메인, 위치가 가치다

떠오르는상가!, 테라스 상가로 돈이 몰린다

[전 점포 (수익률 7%)책임임대]

- 상무지구 LANDMARK
- 최고의 중심상권
- 높은층고 (5.7m)
- 1층 전점포 테라스 설치
- 광주의 가로수길(360m테마거리)

테라스가 있는 프리미엄 상가 상무 광명메이루즈 **테라스가든**

# 상가분양

분양문의 062) **371-4600**

상무지구지역주택조합 광명주택 KAIT 한국자산신탁